

TUGraz 교환학생 활동보고서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이 보 원

우선 교환학생 후기를 작성하기 전에 정말 뜻 깊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동창회 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교환학생은 정말 제 인생 통틀어서 가장 행복하고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교환학생 가기 직전에는 유럽 여행만을 꿈꾸며 설렘 속에 무턱대고 교환학생을 지원했던 제 자신을 원망한 적도 있습니다. 독일어나 영어로 이루어진 각종 교환학생 관련 서류 제출, 비자 발급 등을 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기에 180일동안 유럽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막막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영어를 그리 잘 하지 않았기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힘들 것이라 생각하여 두려움에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교환학생을 시작함과 동시에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새로운 일 처리 속에서 많은 도전이 수반되었지만 덕분에 성취감을 느끼면서 설렘 가득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 특히 오스트리아에서의 생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오스트리아

교환학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학교도 중요하지만, 학교 소재 국가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0일의 교환학생 기간 중 가장 오랜 기간 지내야 하는 곳일 테니 그 국가의 분위기, 물가, 안전한 정도 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스트리아는 정말 좋았습니다. 사실 초기에 제가 오스트리아를 결정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유럽의 중심이기에 유럽 여행을 다니기에 좋다는 점. 그리고 TUGraz가 교환학생이 많아서 교환학생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말 사실 그대로 유럽 여행 어디든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돌아다닐 수 있었고, TUGraz 역시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일 처리가 진행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았던 점은 그라츠 사람들입니다. 동양인이기에 차별하는 느낌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동양인이기에 타지에 살고 있는 저를 더 도와주려 하시고 배려해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물가의 경우, 외식 물가는 우리나라보다 비싼 편이지만, 장을 보는 물가는 매우 싼기에 요리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측면에서 오스트리아 그라츠를 교환학생으로 선택한 것에 정말 만족합니다. 언어는 독일어를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 구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독일어를 모른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심은 A1, HoT 등이 있는데, 저는 제일 값싼 HoT 유심을 이용했고, 충전 역시 정말 편했습니다.

2. 여행

총 18개국(오스트리아, 독일, 체코, 헝가리, 그리스,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모로코, 모나코,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폴란드, 크로아티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부활절 공휴일, 주말, 주중 수업이 없는 날, 종강 후 7월 한달 정도에 틈틈이 여행을 다니면서 다양한 국가를 맛볼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국가를 접할 수 있는 것이 교환학생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장점은 성수기가 아닌 시기에 마음껏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4~5월 보통 좋은 날씨 속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여행을 많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남들과 비슷한 경제적 제한 속에서 빠른 계획과 예약으로 보다 값싸게 여행을 다닐 수 있었기에 많은 국가를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숙소는 한달 이전, 교통은 두 달 이전에 예약까지 끝마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제가 교통이나 숙박 시설을 찾았던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교통

- GoEuro : 유럽 내 버스/기차/비행기 교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어플, 가끔 가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대략적인 교통 상황을 파악할 때 좋음
- Flixbus : 유럽 내 가장 싼 버스 중 하나, 내부에서 화장실과 와이파이 이용 가능하며 콘센트가 있는 경우도 꽤 있음, 매우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기에 값싼 여행에 최적, 국제학생증이나 ESN을 통해 할인 받을 수도 있음
- Ryanair : 유럽 내 가장 싼 비행기 중 하나, 시설 자체는 다른 비행기에 비해 안 좋을지 몰라도 매우 싸기 때문에 매력적, ESN을 통해 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서 더 매력적, 그렇기에 2~3시간 정도 이내의 비행이라면 강추
- 기타 : Getbybus(크로아티아 내 버스), Vueling(스페인 항공), Air France(프랑스 항공), Aegean Airlines(그리스 항공), Trenit(이탈리아 기차), qando Graz(그라츠 교통), OBB(오스트리아 기차)

2) 숙박

- 우선 booking.com을 통해 호스텔을 주로 알아봤었고, 호스텔 가격이 그리 싸지 않을 때에는 에어비엔비를 통해 친구초대 credit을 받고 값싸게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숙소를 10~20 유로 선에서 해결했습니다. 호스텔의 경우 보통 시기에 따른 가격 변동이 크진 않지만, 에어비엔비의 경우 값싸고 좋은 숙소는 금방 다 팔리기 때문에 빠른 예약은 필수입니다.

3. 수업

우선 TUGraz의 대부분 영어 수업은 석사 수업입니다. 하지만, 수준이 충분히 들을 만 하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업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은 Studo이고, 제가 들었던 과목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1) Biotechnology TC

발표 수업으로 교수님의 세미나식 강의를 듣고 생명공학의 기본에 대하여 배운 다음, 생명공학 관련 논문 하나를 택해서 발표를 합니다.

2) Bionanotechnology

교수님께서 나노생명공학 관련 연구를 소개해주시면서 생명공학의 응용에 대하여 알려주신 다음, 그 주제 중 하나를 택해서 또 다른 논문 등을 찾아서 발표를 하는 수업입니다.

3) Energy and Environment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개략적인 수업으로 보통 환경 관련 협약, 시스템, 제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4) Chemical Thermodynamics 1

열역학의 상평형 계산에 초점을 맞추어 열역학 법칙, 깁스 자유에너지, 화학포텐셜, 퓨가시티 등을 배웁니다.

5) Chemical Analytics and Sensors

분석화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분석 관련 화학적 지식 보다는 기기에 초점을 맞추어 기기 분석 방법, 원리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신 공과대학 동창회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 드리고, 동료의 활동평가 첨부하겠습니다.

To be honest, I didn't expect that I can get familiar with foreigners. But now, I think you are my best friend during my stay in Graz. Thank you for the delicious Korean food, for well-planned traveling schedule, and for sharing a lot of stories and experiences. Those "deep talks" with you strongly let me know that language is really not an excuse or barrier in any friendship.